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황혜민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fter clinical practice

Hye Min Hwang

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고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일 지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132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임상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요인은 경제수준($F=4.94, p=.009$), 지원동기($F=3.13, p=.011$), 지난 학기 성적($F=4.27, p=.016$)이었으며,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 이미지($r=.22, p<.012$), 전공만족도($r=.20, p<.019$)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F=.73, p<.001$), 전공만족도($F=.24, p<.001$)였으며 전체 8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후 고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며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A total of 132 nursing students who were attending A university were survey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1 June 2017 and 30 June 2017. As a result, the factors,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economic level ($F=4.94, p=.009$), reason for major selection ($F=3.13, p=.011$), and past grades ($F=4.27, p=.016$).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correlated with nurse image ($r=.22, p<.012$) and major satisfaction ($r=.20, p<.019$).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professional self-concept. Therefore, elevation of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Keywords :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학부과정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루어나가는 단계로, 다양한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 이수 및 교과 외 활동 등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전문적 직업훈련을 교육받는 곳이라고 인식

*Corresponding Author : Hye Min Hwang(Bu-Cheon Univ.)

Tel: +82-32-610-8301 email: julie06@bc.ac.kr

Received March 27, 2018

Revised (1st April 18, 2018, 2nd April 24,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학 생활 중 장래 직업과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5년 현재 64.4%이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는 69.5%로[2], 대졸자의 절반 정도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은 학부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에 맞거나 취업이 가능한 학과와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3]. 이러한 상황은 전공에 대한 흥미를 낮추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케 하며[4] 나아가서는 직업선택에 대한 청년기 발달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간호학과는 경우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업과 미래가 보장되고, 전문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입시경쟁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U턴 입학”도 간호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5].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6]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Ha[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은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만족을 의미하는 인식만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학생의 전공만족은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인 간호사 이미지 [7]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과거 대중매체의 영향[8]과 간호직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일반 대중은 간호를 여성의 일, 간호사를 의료의 부수적인 수동적 존재 등과 같이 간호에 대해 왜곡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9, 10]. 반면 최근 들어 의료서비스의 변화와 전문직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 간호직은 여성 전문직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향후 10년 뒤 발전이 전망되는 20개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1]. 또한 간호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인해 간호계 내부적으로도 간호사의 이미지는 향상되고 있는 추세[12]이다. 더욱이 간호가 전문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 때부터 직업에 대한 긍

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13, 14]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인 저학년 시기에는 간호에 대해 긍정적이고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난 반면,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임상실습 후에 오히려 간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율성이 낮은 직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서 간호학생이 간호사 업무의 과중함, 동료관계에서의 불평등함, 환자와의 갈등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13, 14]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서적 지각을 의미하는데[15] 이러한 전문직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실습 중 간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감 및 간호직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 뿐 아니라 학과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미디어나 일반인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8, 9, 10],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16], 임상실습만족과 전문직 자아개념[17]등이 있으나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취업률과 전문직이라는 장점으로 간호학과 입시경쟁률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간호학과 교육과정 중 간호업무를 가장 근접해서 배울 수 있는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여 간호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 후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수준을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

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한다.
- 5)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과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며 표적 모집단은 일 지역 A대학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 효과크기의 값 0.15, 검정력($1-\beta$)=.95, 예측변수 5개(경제수준, 학과 지원동기, 지난 학기 성적,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인원은 57명으로 산출되었다. 총 13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탈락율은 없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이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료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단한 학용품을 제공하는 보상을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유무, 경제수준의 4가지와 학과관련 특성은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 지난학기 성적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2.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Lee등[18]이 개발하고 Jang[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α =.937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Kim과 Ha[20]가 작성한 34개 학과만족 도구 중 Lee[21]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4이었다.

2.3.4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Arthur[22]가 개발하고 Song[23]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 윤리 영역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Song[2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3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940으로 나타났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그 외에도 자료의 익명성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이후 언제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았다.

2.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 주요 변수들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32명의 간호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88.6%(117명)로 대다수였으며 연령은 20대 초반이 79.5%(105명)였다(Table 1). 경제상태는 상이라는 답변이 50%(66명)로 가장 높았다. 학년은 3학년이 53.8%(71명)이었으며 전공선택 이유는 취업을 때문이라는 답변이 34.1%(45명)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학기 성적은 65.9%(87명)의 학생들이 3.0-3.99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간호사 이미지의 평균 점수는 3.51점($SD=0.52$)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하위요인으로는 대인관계가 3.26점($SD=0.6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가 3.74점($SD=0.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평균점수는 3.71점($SD=0.56$)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으로는 인식만족이 4.14점($SD=0.56$)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만족이 3.34점($SD=0.7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점수는 3.08점($SD=0.41$)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은 3.49점($SD=0.52$)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 실무는 2.94점($SD=0.48$)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3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Female	117(88.6)	23.7(5.01)
	Male	15(11.4)	
Age(yrs)	20-24	105(79.5)	23.7(5.01)
	25-29	16(12.1)	
	30≤	11(8.3)	
Religion	Yes	64(48.5)	68(51.5)
	No	68(51.5)	
Economic level	High	66(50.0)	34(25.8)
	Middle	34(25.8)	
	Low	32(24.2)	
Grade	3	71(53.8)	61(46.2)
	4	61(46.2)	
Reason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22(16.7)	45(34.1)
	volunteer work	10(7.6)	
	grades	12(9.1)	
	parents' advice	21(15.9)	
	employment	45(34.1)	
	Etc.	22(16.7)	
Past grades	4.0≤	9(6.8)	87(65.9)
	3.0-3.99	87(65.9)	
	≤2.99	36(27.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measured variables (N=132)

Variables	Mean±SD	Range
Nurse image	3.51±0.52	1.48-4.86
-Endowment	3.67±0.60	1.44-5.00
-Role	3.26±0.67	1.86-4.57
-Social participation	3.74±0.57	1.86-4.86
-Relationship	3.30±0.52	1.00-5.00
Major satisfaction	3.71±0.56	1.94-5.00
-Recognition	4.14±0.56	2.67-5.00
-General	3.56±0.76	1.00-5.00
-Relationship	3.54±0.73	1.67-5.00
-Course	3.34±0.71	1.94-5.00
Professional Self-Concept	3.08±0.41	2.17-3.97
-Professional Ethics	3.17±0.51	1.50-4.00
-Professional practices	2.94±0.48	2.00-4.00
-Satisfaction	3.14±0.53	1.67-4.33
-Communication	3.49±0.52	2.00-4.50

Table 3.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Variables	Categories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Female	3.50±0.52	-.67	.504	3.69±0.54	-1.20	.125	3.07±0.40	-.69	.375
	Male	3.60±0.53			3.88±0.54			3.15±0.48		
Age(yrs)	20-24	3.54±0.49	1.24	.290	3.68±0.54	1.36	.260	3.10±0.40	.96	.385
	25-29	3.32±0.52			3.75±0.60			2.95±0.44		
	30≤	3.47±0.78			3.97±0.71			3.06±0.50		
Religion	Yes	3.53±0.55	.41	.915	3.76±0.58	1.05	.819	3.08±0.39	-.01	.323
	No	3.49±0.49			3.66±0.55			3.08±0.43		
Economic level	High	3.11±0.40	.42	.659	3.96±0.51	4.47	.013*	3.76±0.40	4.94	.009*
	Middle	3.02±0.55			3.67±0.59			3.46±0.55		
	Low	3.09±0.54			3.61±0.55			3.42±0.54		
Grade	3	3.48±0.59	-.84	.110	3.65±0.42	-1.37	.207	3.11±0.38	1.07	.232
	4	3.55±0.42			3.78±0.52			3.04±0.44		
Reason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3.16±0.38	.99	.425	4.10±0.50	2.95	.015*	4.16±0.38	3.13	.011*
	volunteer work	2.97±0.42			3.66±0.39			3.79±0.42		
	grades	3.03±0.27			3.78±0.46			3.58±0.27		
	parents' advice	3.02±0.35			3.64±0.64			3.40±0.35		
	employment	3.15±0.46			3.62±0.52			3.51±0.46		
	Etc.	2.98±0.41			3.55±0.61			2.98±0.41		
Past grades	4.0≤	3.16±0.76	.21	.811	3.69±0.76	6.80	.002*	3.29±0.59	4.27	.016*
	3.0-3.99	3.08±0.45			3.83±0.52			3.61±0.40		
	≤2.99	3.06±0.57			3.71±0.56			3.34±0.40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학과 관련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전문직 자아개념을 분석하였다(Table 3).

그 결과 전공 만족도는 경제수준에 따라($F=4.47$, $p=.013$),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라($F=2.95$, $p=.015$), 지난 학기 성적에 따라($F=6.80$, $p=.002$)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경제수준에 따라($F=4.94$, $p=.009$),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라($F=3.13$, $p=.011$), 지난 학기 성적에 따라($F=4.27$, $p=.016$)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 이미지($r=.22$, $p=.012$), 전공만족도

($r=.20$, $p=.019$)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r=.67$,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132)

Variable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r (p)	r (p)	r (p)
Nurse image	1		
Major satisfaction	.67* ($<.001$)	1	
Professional Self-Concept	.22* (.012)	.20* (.019)	1

3.5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상관관계가 있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와 일반적 특성 중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경제수준, 간호학과 지원

동기, 지난 학기 성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 5).

독립변수 사이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상(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7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최종모형에서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선정되고 경제수준, 간호학과 지원동기, 지난 학기 성적은 제외되었다. 최종 모형의 F값은 283.4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2 의 값은 .81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설명력은 81.0%였다. 각각의 변수들을 볼 때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beta=.73$, $p<.001$), 전공만족도($\beta=.24$, $p<.001$)였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Intention (N=132)

Variable	B	SE	β	t	p	F (p)
Constant	.631	.14		4.47	.150	.876
Nurse image	.73	.04	.73	16.02	<.001	(<.001)
Major satisfaction	.24	.04	.26	5.76	<.001	
Adj. $R^2=.81$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을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은 간호사 이미지를 보통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 의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한 Seo[12]의 연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간호사 역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영역의 문항들이 간호의 독자적인 수행, 상담가와 교육가, 리더십 등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임상실습 전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미지와 실제 임상실습에서 관찰한 이미

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하위요인 중 간호사 사회참여가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이 항목이 간호사의 전문성과 고도의 숙련기술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24]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고학년 임상실습 전후 간호학생이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임상실습 전에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간접체험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실습 중에는 학교와 임상실습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임상실습 후에는 간호학생의 생각과 의견을 피드백하여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한 Suk등[25]의 연구에서 나온 3.56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며 Kang과 Hwang[26]의 연구결과인 3.84점보다 약간 낮아 대부분의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전공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정도인 인식만족이 가장 높은 반면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적성에 맞아 전공을 선택한 16.7%의 간호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률이나 부모의 권유와 같은 다른 이유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경제수준에 의해서도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비해 낮은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Shin, Jung과 Gu[27]는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전문직 이미지, 높은 취업률 등이 간호학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적성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이런 요인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성에 맞아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간호학 전공 과

목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전공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적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진학한 경우와 경제수준을 확인하여 이들이 전공에 흥미를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28]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점이다.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선행연구[29]와 비교해 볼 때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간호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결과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으로 인해 간호사 업무를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간호사 업무를 해 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가져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30]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학부 과정에서부터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학부과정에서 형성된 전문직 자아개념을 임상에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업무를 배우고 관찰할 기회가 많은 고학년 임상실습 시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2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간호사 이미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뒤를 이어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이 간호사의 직무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임상실습 전후에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개인의 경제수준과 간호학과 지원동기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연구 대상자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일개 간호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임의 표출하였으며 학년별 실습경험 정도와 실습한 병원의 규모, 실습 병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로서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전문직 자아개념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심어주며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돕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간호학생의 경제수준,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구 대상을 세분화하여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는 포커스 그룹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thesis, 2006.
- [2] Statistics Korea. [Internet].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assess April 17, 2018)
- [3] S. J. Cho,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Department Choice Based on Customers' Centered Education.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3, no. 3, pp. 11-15, 2010.
- [4] K. M. Jang, "Effects and Process Analyses of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Won Kwang University, Iksan, 2002.
- [5] .Veritas News.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04> (assess April 17, 2018)
- [6]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7] H. I. Kim, H. O. Kim,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7, no. 1, pp. 97-110, 2001.
- [8] P. A. Kalisch, B. J. Kalisch,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e and physician characters in the entertainment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11, no. 2, pp. 179-195, 1986.

-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86.tb01236.x>
- [9] J. W. Seok, "Nurse image stereotypes through the public's eyes",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11.
 - [10] S. H. Lee, J. A. Kim,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1, pp. 52-62, 2006.
 - [11] H. J. Jang, "Indicators based on occupation of Korea after 10 years 2013 Seminar for Job Prospect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20, no. 4, pp. 19-38, 2013.
 - [12] E. H. Seo,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4, pp. 610-616, 2009.
 - [13] H. S. Kang, W. O. Kim, "Changes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9, no. 3, pp. 379-387, 2002.
 - [14] M. R. Kang, K. S. Jeong, "A Comparison of the Nurses Image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4, pp. 342-349,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4.342>
 - [15] L. W. K. Geiger, J. S. Davit, "Self 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 19, pp. 50-58, 1988.
 - [16] J. A. Seong, E. Y. Yeom, Y. S. Do, "Imag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4, pp. 798-809,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1.798>
 - [17]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 1, pp. 18-24, 2012.
 - [18] H. R. Lee, K. O. Choi, J. E. Ko, M. R. Hong, S. Y. Kim, H. S. Shin, "Survey on Nurse's Image" *Journal of Kyung Hee Nursing research*, vol. 15, pp. 45-65. 1992.
 - [19] S. H. Jang, "Survey on Nurse's Imag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88.
 - [20]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 [21]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22] D. 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 15, pp. 328-335, 1995.
DOI: [https://doi.org/10.1016/S0260-6917\(95\)80004-2](https://doi.org/10.1016/S0260-6917(95)80004-2)
 - [23] H. R. Song,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10.
 - [24] J. Choi, N. 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5, no. 1, pp. 54-63, 2009.
 - [25] J. J. Suk, J. M. Jo, Y. I. Young,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2, no. 1, pp. 27-36, 2014.
 - [26] Y. S. Kang, S. K. Hwang,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7, pp. 3301-3309, 2013.
 - [27] S. M. Shin, K. H. Jeong, J. H. Gu, "Survey of world-recognized female student occupatio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8.
 - [28] K. S. Kim, "A Study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0, no. 3, pp. 1991-2001, 2011.
 - [29] S. H. Park,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autonomy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9, no. 4, pp. 325-334, 2015.
DOI: <https://doi.org/10.21184/jeia.2015.12.9.4.325>
 - [30] H. J. Jang, S. O. Yang, M. O. Le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Need for Advanced Practice Nurse among Korean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4, no. 1, pp. 110-119, 2007.

황 헤 민(Hye Min Hwang)

[정회원]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성인간호학전공(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성인간호학전공(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